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이주정(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석사과정)

김민정(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조교수)

베이비부머의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 증대와 더불어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물론 결혼자금과 주택 마련에 대한 부분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많고 자녀세대들 역시 이를 당연시하여 왔다. 대학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니트족"의 형성에 대해 연구한 Helin(2010)은 대학생들을 하는 동안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강하여 스스로 부모에 대한 의존 심리를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모두의 경제적 복지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조사는 한국과 중국에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90명(한국대학생 147명, 중국대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과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 특성을 묻는 총 39문항을 포함하여 조사되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대학생들은 중국대학생들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으나 이를 충당하기 위해 부모에게 의존하는 정도는 중국대학생들이 더 높았다. 둘째, 부모의 경제적 특성을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부모의 소득이나 지출, 자산과 부채 등 일반적인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중국학생들이 한국학생들에 비해 더 잘 인지하고 있었으나 부모의 노후생활에 대한 생각은 한국학생들이 중국학생들보다 더 잘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대학생은 중국대학생들보다 부모의 소득 중 대부분이 자신을 위해 지출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강하였다. 셋째,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는 시기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중국대학생의 경우 한국대학생에 비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지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시기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여유가 있을 때까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는 한국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그 비율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또한 본인이 취업하기 전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중국대학생들이 한국대학생들보다 더 강하였던 반면, 부모를 위해 본인이 소득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대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넷째, 부모의 경제적 의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한국대학생들은 부모의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등 재정상황에 대해 남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대학생들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또한 본인 스스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한국학생들에게서만 성별

* 본 논문은 학부졸업논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임.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들이 부모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부모를 위해 소득활동을 하거나 부모의 노후생활비를 위해 본인의 소득을 양보할 의향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섯째, 부모의 소득수준을 평균을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으로 구분하고 자녀들의 인식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가 노후에 어떻게 생활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한국여학생들이 한국남학생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인지하였다. 또한 등록금에 대한 의존비율 차이에서 고소득층의 한국대학생의 등록금 의존 비율이 저소득층 의존비율보다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중국대학생들의 의존도가 더 높았다.